

건축가의 선비정신

Noblesse Oblige of Architect

서보광 / (주)동성건축사 사무소
by Suh Bo-Kwang

아다시피 몇 년 전부터 선비정신이니 선비예찬론이니 하는 것이 심심찮게 저널리즘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적 인간상이란 나라나 시대마다 그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선비가 우리 사회의 이상상(理想像)이었던 것은 그 당시 양반 신분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유럽에 기사도가 있고 일본에 무사도가 생긴 것도 제각기 중세의 봉건제가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한 인간상이었기 때문이다. 한데 이처럼 전 시대적 인간상인 선비가 오늘날 왜 새삼스럽게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예찬까지 받게 되었을까?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이 정신은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하고있는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의무(Oblige)'를 다해야만 '명예(Noblesse)'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쟁과 같은 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유럽의 기사도 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귀족 사회의 전통적 모럴은 근대의 1,2차 세계대전이나 가까운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왕족이나 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선비 또한 중세 유럽의 기사도나 일본의 무사도처럼 조선왕조 5백 년간 양반들의 이상적 지식인상이었다. 선비란 다분히 비민중적이면서 비세속적이고 공리 공론(公理空論)을 일삼는 관념적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 그들은 대의를 위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나라가 위태로우면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싸우는 등 충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선비정신이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에서 귀족이나 어떤 특권층을 지키려는 일종의 자구책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도층이나 특권층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며 일반 민중에 앞서서 숭선 수범하려는 자세는 국민정신을 결집시키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계급사회도 중세도 아닌 지금, 필자 또한 귀족이니 선비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왜 선비정신이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어려모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때일수록 권력을 가진 권력층은 물론이고 각계 지식층에게 그런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여러 문제들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축계의 문제만 봐도 그렇다. 너무 어렵고 흐트러져 있다. 여러 매체들에서 올해의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이나 상승 중이나 하면서 떠들 어대지만 아직까지도 피부에 느껴지는 경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그런 매체들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건축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인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건축계 전반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설계사무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황을 겪고있는 많은 설계사무소들은 장래에 대한 어떤 준비나 기대도 없이 아예 일손을 놓고 있거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건축가들의 사정은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근년 들어 양산된 많은 건축사들의 경우는 더 심한 환경에 처해있다. 일다운 일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은 경비에도 못 미치는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다면 이리저리 물려다니고 있다. 그들에게 일의 성격이나 참다운 건축이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난개발이건 아니건 그저 개발은 일감의 창출이라는 복덕방적인 사고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소한의 설계비는 보장받게 하는 내부적인 장치나 룰이 존재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장치도 룰도 사라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비가 판을 치는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설계경기에 정력을 낭비하거나 최소한의 경비도 보상받지 못한 채 덤핑으로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건축계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하나도 아닌 건축단체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득권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만 힘을 쏟을 뿐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지경까지 왔으니 건축가를 노동자로 분류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이나 복덕방업자나 집장사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개화기에 조선을 찾아온 유럽의 선교사나 여행자들은 조선 선비들의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면서도 빈궁 속에서도 그 태연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도 있다.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가의 정신까지 요구한다는 건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현실 역시 우리 건축가들이 자초하고 있는 일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말을 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건축전문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야 하는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도 오랜 동안 실무와 이론교육을 터득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 시대의 공간적인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펴고 건축을 문화적인 행위로 이해시키고 건축가 또한 인정받아야 한다.

의약분업사태에서 보여준 의사나 약사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들은 사회에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시켰고 인정받고 있지만, 건축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도를 넘은 주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말은 해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인인 건축가들의 선비 정신이 아닐까. 적어도 그런 노력들을 다음 세대의 건축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건축에 첫발을 띄며 기졌던 생각들이 그림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세상이 힘들다하여 세속에 찌들지 않으며, 겸허한 자세로 역량을 키우며 묵묵히 일하는 건축가. 잘못된 건축계에 대하여 당당히 얘기하고 실천하는 건축가. 그런 건축가가 정말 선비같은 건축가가 아닐까? ▣